

구도심 재개발 외면...초고층 아파트숲 초래



민간공원 개발까지 손뼉은 공기업 LH

■ 도시 외곽 개발에만 치중...구도심 쇠락 부채질

지역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52곳 모두 민간이 추진 중

LH “손실 커 참여 안해”...도시공간을 수익창출 공간 인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2000년 이후 광주 외곽에 공동주택 택지를 대거 공급해 고층아파트 개발을 이끌면서 광주 도심 공동화와 구도심 쇠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LH는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구도심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외면하면서 구도심의 ‘초고층 아파트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52곳은 모두 민간이 추진 중이다.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민간건

설업체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주와 건설업체 모두 이익을 내기 위해 초고층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재개발 등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더해지면서 25층 이상 아파트들이 구도심 곳곳에 들어서 도시 외곽과 시가지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변모하고 있는 셈이다.

LH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공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LH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 참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공사 내에서 엄격한 경영투자심사를 통해 신규사업을 결정하는데,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주민들도 공기업보다는 민간 건설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LH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공동주택 택지를 제외하고 실제 아파트 분양 및 임대아파트 공급은 대부분 광주 외곽을 대상으로 했다.

LH는 지난 2011년 광주학2마을 794세대를 시작으로 2014년 10월 호천 LH천년나무5 521세대까지 분양아파트 2242세대, 2010년 9월 광주 백운1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호천LH천년나무7 902세대까지 국민·공공임대(6년, 10년),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 9804대를 공급했다. 모두 1만 2046세대 가운데 구도심에 공급한 세대는 광주시 남구 백운동 1832세대, 동구 학동 794세대에 불과하다.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면서 원주민이

주, 구도심 초고층 개발 등 공공성 쇠퇴 등에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또 LH가 공급한 호천 LH천년나무5단지 경우 분양권에 최대 5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한 아파트와 똑같은 거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공기업이 분양하고 임대 아파트는 민간건설업체들이 외면한 시민, 중산층, 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LH와 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도시공간을 민간건설업체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광주를 현재의 고층아파트 도시 숲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공기업이 가져야 할 본연의 자제인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먼저 고려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한·미 정상회담...한반도 정세 분수령

미·일 정상회담 의제 등 참고

북핵·한반도 평화구축 공조

FTA·중국 견제 대립 주목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 순남맞이와 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동맹관계가 끈끈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는 실리적인 면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에서 가장 주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그에 따른 한미 공동의 대응, 한반도 평화구축 기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듯이 북 핵 이슈 외에 경제·무역 이슈의 불균형성을 제기하며 철저히 이익을 챙기려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온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에 요구했듯이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멜라니아(왼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두번째)와 아키에 여사(오른쪽)가 일본 도쿄 모토키카사카 영빈관에서 의장대 사열식에 참석하고 있다.

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부터 적극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경색된 관계를 풀고 겨우 한중 관계의 해빙이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에 동참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로부터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취임 후 세 번째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도 천년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광주·전남·전북 10일 선포식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오는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성공 추진 선포식을 연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선포식에는 호남권 시·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출향인사, 주요 기관장,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국내외 여행업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는 ‘천 년의 길, 천 년의 빛’을 주제로 전라도의 문화·역사·자연생태·인문·생활상을 관광 자원화하려고 준비됐다. 또한, 전라도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행사로 전라도 전통문화의 매력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서는 이억주 서울시장대 교수의 ‘천 년 스토리’ 강연, 비전 영상 상영, 방문의 해 선언 점등 퍼포먼스,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3개 시·도와 각 지자체들이 상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을 한다. 아울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전라도 방문의 해’ 조형물 제작식과 함께 전라도의 역사·관광자원을 여행하는

‘전라도 탐사단’ 출범식도 열린다.

3개 시·도는 전라도 여행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을 선정해 관광자원화하고, 전라도 인문과 역사를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 대탐험단을 운영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계한 ‘전라도 아트&버스킹 페스티벌’ 등 9개 분야 공동사업도 병행한다.

이밖에 관광명소를 연결한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전북 투어패스와 광주·전남·남도패스로 관광지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지역 테마를 발굴해 천년 고택·종택을 활용한 문화체험과 전라도 음식 테마관광, 청소년과 취약계층 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 관계자는 “전라도는 천년 동안 동북아 경제문화의 중심지였고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원동력이었다”며 “한류의 본원, 관소리, 수목화 등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자연환경과 음식을 중심으로 힐링 여행 1번지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 걷고 끼니 거르고...국민건강 빨간불

성인 5명 중 2명만 걷기 실천

3명 중 1명은 아침 안먹고

지방 섭취율 해마다 증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민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걷기를 실천하는 성인은 5명 중 2명,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모두 실천하는 사람은 6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비만과 관계가 큰 지방섭취는 해마다 늘고 있고, 3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거른다. 또 18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성인 1만명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내놓은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9세 이상 성인의 ‘걷기 실천율’(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의 비율)은 39.6%로 2014년 41.7%, 2015년 41.2%에 비해 줄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1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혹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한 사람의 비율)은 49.4%로 2015년 52.7%보다 낮았고, 2014년 58.3%에 비해서는 8.9%포인트나 줄었다.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1주일 중 근력운동 2일 이상)을 함께 실천하는 사람도 10명 중 6

명꼴인 15.0%에 그쳤다. 전년도 실천율은 17.2%였다. 건강 유지에 있어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널리 홍보되고 있지만, 생활습관을 실제 고치는 사람들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조사에서 성인들은 신체활동 실천이 어려운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38.6%), ‘땀 흘리는 게 싫어서’(14.8%),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9.7%)를 들었다.

영양 섭취와 관련해서는 성인의 지방 섭취율(총 에너지 섭취량 중 지방에서 취하는 에너지 비율)은 2007년 17.6%에서 계속 증가해 작년 22.4%로 올라왔다.

/연합뉴스

2억, 투자시

월 300만원씩 지불, 1분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경매 진행 물건
■전화상담 사절

오천경매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 원도 약산면 독암리 바다집 2481㎡ 판선·별장적합 2억4천
• 원도 약산면 독암리 경관치고부지 31503㎡ 연소사육적합 5억7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정상 북이면 백암봉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코너 대지 93㎡ 주택 94㎡ 가계 2인차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2천
• 서동 제일프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월보10조월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복층주택 60여평 편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 · 매도 · 교환

• 원도군 금당면 가화리 땅 2013㎡(609평) 조용한 생활에 적합 하루에 여객선 4회다닐 육지에서 40분 3300만원
• 양계장 허가부지 장흥읍 15000여㎡ 축사허가도 있음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상가건물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사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전북 고창 대산면 아파트상가 1·2층 252㎡ 은행 1억 매도 5천만원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병원·사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동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금 매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송정리 부동산 매물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투자가치의 3개소

▶ 11억, 12억, 19억

▶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대형부지 (만오천평)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